

한성대신문

1976년 12월 15일 창간

www.hansungnews.com

2023년 5월 8일 월요일 제589호

지면안내

03

사회
긴장 팽팽했던 노동절대회...
"생존 위한 투쟁"

04

문화
아이돌 덕질, 팬들이 움직인다

05

사람사
테마파크의 '뉴 패러다임',
그 중심에 서다

06

학술
한양 수도성곽, 세계로의 발돋움

본교 교수·직원, 尹 규탄 시국선언



▲4월 19일 13시, 한성대학교 정문에서 본교 교수 및 직원이 윤석열 정부 규탄 시국선언서를 낭독 중이다.

지난 4월 19일, 한성대학교 정문에서 본교 교수 20명, 직원 63명 등 총 83명이 현대통령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시국선언서를 발표했다. 교수와 직원들은 해당 시국선언서를 통해 ▲제3차 변제방식 철회 ▲외교부 장관 해임 및 외교 안보라인의 전면 쇄신 ▲미국에 의한 도·감청 사건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과 재발 방지책을 강구할 것 ▲69시간 개악안 철회 ▲민주공화정의 참정신 실천을 요구했다.

한성대학교 직원노동조합 측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가 공정·법치·정의의 원칙을 허물어뜨리고 있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며 '국민주권의 헌법적 가치와 노동의 법적 가치를 토대로 한 민주공화정의 정신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본교 구성원들이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는 것이 이번 시국선언서 발표의 취지다.

시국선언서 낭독에 앞서 김귀옥(상상력 교양대학 소양·핵심교양학부) 교수는 "공정·법치·정의의 가치가 위태되고 외교활동 등에서 국적이 형편 없이 실추되고 있으며 국가 운영마저 과거 권위주의 시절로 회귀하고 있음을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만들었다"며 "민주주의가 회복되는 길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것이고 대학교육이 바로 되는 것이며 노동자와 시민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믿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발언했다.

이어 윤구(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대학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장) 한성대학교 교지부장은 "윤석열 정부는 출범 1년도 채 되지 않아 여러 가지 오류와 불의의 늪에 빠져 있다"며 "젊은 세대에게 주 69시간 노동을 하라고 개악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인정된 노동조합을 불법적으로 탄압하고 있

다"고 언급했다.

시국선언서 발표 이유에 대해 김 교수는 "현 정부의 문제를 비판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우리가 가르치는 청년세대에게 돌아갈 것으로 우려돼 뭐라도 하지 않을 수 없는 마음으로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직원 측은 교수 측이 내놓은 시국선언서의 내용과 자신들의 지향점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존재해 시국선언에 함께 참여했다는 입장이다. 윤 지부장은 "주 69시간 노동,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등에 대해 반대하기 위해 입장을 내놓았다"며 "노동조합에 국한되지 않더라도 우리 전체의 민주주의가 진보하기 위해 참여했다"고 말했다.

한편, 총학생회는 직원 측의 동참 요구에 축제 준비 등의 업무를 사유로 들어 금번 시국선언에 동참하지 않았다.

박희진 기자 furi1120@naver.com

미래모빌리티학과, 2024학년도부터 신입생 모집

'미래모빌리티학과'가 2024학년도부터 신설된다. 창의융합대학 소속인 해당 학과는 올 하반기 예정된 수시모집부터 신입생을 모집하며, 총 40명을 주간 단독으로 선발한다. 작년 12월 기획위원회와 교무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당 학과의 신설을 확정했으며, 교육부의 학과 신설 승인 절차까지 통과됐다. 기존 재학생 및 타 학부(과) 소속 학생은 '2025학년도 1학기 트랙선택'부터 신설 학과를 제2트랙 또는 제2전공으로 선택 가능하다.

미래모빌리티학과는 차세대 모빌리티 융합 분야의 특성화 학과다. 해당 학과는 미래 자동차, 드론 등 차세대 이동수단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며 컴퓨터공학, 기계전자공학 등의 전공이 융합된 교육과정을 갖춘 예정이다. 올해 말, 1학년

교육과정 공개를 시작으로 세부 교육과정이 수립될 방침이다. 학과 교수진은 ▲전자트랙 ▲기계설계트랙 ▲기계자동화트랙 ▲산업공학트랙 ▲AI응용학과 소속 교수 중 일부로 구성될 계획이다.

미래모빌리티학과 신설과 관련해 박용훈(전략기획팀) 팀장은 "첨단분야 인재 양성이라는 정부 정책에 부합하기 위해 학과 신설을 결정했다"며 "신산업 인재 양성이라는 본교의 발전 계획과도 연관성이 있다"고 학과 신설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트랙제 하에서는 학생 스스로 전공을 찾아 융합시키는 반면, 특성화 학과는 융합된 전공을 학생에게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트랙과 학과가 서로 보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황서연 기자 hsy040623@gmail.com

웨이티 일부 메뉴 주문 불가, 수요·공급 조절 위함이었다

최근 학생식당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웨이티' 애플리케이션에서 일부 메뉴를 주문할 수 없다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산들푸드 측은 주문량과 조리 속도 조절 차원에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본교 학생식당에서 이용 가능한 웨이티는 모바일로 주문과 결제를 진행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다. 웨이티에서 주문 가능한 메뉴를 조회하면 라면 등 면류와 일부 메뉴는 '판매종료' 처리돼 있어, 주문이 불가하다. 즉, 해당 메뉴는 학생식당 내 키오스크를 통해서만 주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일부 학생이 불편을 호소했다. 정효진(사회과학 1) 학생은 "3월에는 웨이티로 주문할 수 있었던 메뉴가 최근에는 키오스크로만 주문할 수 있었

다"고 말했다. 이어 이두영(인문 3) 학생은 "라면을 주문하려 했는데 판매종료 상태가 돼 있어 주문이 아예 불가한 것으로 착각했었다"고 전했다.

산들푸드 측은 계절 메뉴가 출시된 4월부터 '면·김밥·짜개류' 코너 메뉴의 주문량이 쇠도해 웨이티를 통한 주문을 제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상대적으로 천천히 주문을 받아, 조리 속도를 조절한다는 것이다. 전하연(산들푸드 한성대1호점) 영양사는 "웨이티는 빠른 주문이 가능하나, 체감상 수령까지의 시간이 길다. 주문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웨이티 주문을 제한한 것"이라며 "여유가 생기면 주문 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지원 기자 idj_b01@naver.com

02876,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한성대신문사

학내에서 발생한 사건을 어디에 알려야 할지 고민이신가요?

답답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셨나요?

한성대신문은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하기

소중한 제보로 보다 나은 한성대신문을 만들겠습니다.

Tel : 02)760-4186

Fax : 02)760-4389

E-mail : hansungnews@gmail.com

KakaoTalk : @hansungnews

Instagram : @hansungnews

Facebook : @hansungpresscenter

‘Lunch with the President’ 개최

총장 “학생의 정책 수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 어려운 점 기탄없이 이야기하길”

‘Lunch with the President’ 행사가 지난달 17일 열렸다. 본 행사는 재학생들이 총장과 함께 식사하고, 대화를 나누며 소통하는 프로그램이다. 행사는 ▲식사 ▲질의응답 ▲기념 촬영 및 기념품 지급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창원 총장을 비롯한 대학본부 관계자 10명과 사전 신청을 통해 선발된 13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참여한 학생에게는 비교과 포인트 20pt와 참가 기념품이 증정됐다.

참가자들은 식순에 따라 상상관 12층 케이크센터에서 식사를 하고, 9층 대회의실에서 대화를 나눴다. 학생들은 이 총장에게 궁금한 점을 직접 묻기도 하는 등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질의응답을 이어나갔다. 또한 학생들은 ▲수업 및 수강신청 ▲공간 활용 및 시설 ▲생활편의 ▲장학 ▲비교과 프로그램 등 분야의 건의 사항을 대학본부에 제시했다.

학생 측은 전공수업 부족 문제를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박종혁(사회과학 3) 학생은 “기업·경제분석트랙의 3학년 전공과목이 3개밖에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2학년 수업을 듣고 있다”며 “선택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일부 트랙에서 양질의 교육이 제공되지 못하는 부분은 개선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현미(학사지원팀) 팀장은 “해당 트랙과 상의해 교·강사를 추가 채용하고, 과목 부족의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케이키친 한성에서 식사 후 이야기하는 이창원 총장과 참여 학생들

정웅(컴공 2) 학생은 컴퓨터공학부 수강신청 어려움의 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학년마다 수강해야 할 전공필수 과목을 신청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과목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그에 맞춰 수업을 개설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에 김 팀장은 “교수지원팀에서 해당 트랙의 전임교원 총원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서면신청에 대한 공지가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트랙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교내 공간과 관련한 건의사항도 제기됐다. 동아리연합회 측은 동아리방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을 간구했다. 김지영(뷰티 3) 동아리연합회 부회장은 “현재 교내 동아리방 없이 활동하고 있다. 창업동아리의 주된 활동 기간이 방학이기 때문에, 학기 중에는 창업동아리와 동아리방 공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홍성재(창업지

원센터) 센터장은 “선발된 창업동아리의 수가 적은 경우 공간을 내어줄 수 있을 것”이라 답변했다.

교내 운동시설 개방 요청도 이어졌다. 심규보(컴공 3) 학생은 “상상관과 낙산관에 위치한 체육관을 대관이 되지 않은 시간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학본부는 1일부터 주중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상상관 지하 2층 체육관을 개방 중에 있다.

학생들은 교내 시설의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민성(동양화 4) 학생은 “지선관 엘리베이터가 자주 고장 나는데, 엘리베이터 점검이 확실히 이뤄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박철우 총무부처장은 “연식이 오래된 엘리베이터는 교체 중이다. 점검을 통해 문제점이 운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기숙사 시설과 관련한 불편 사항도 언급됐다. 이서연(사회과학 1) 학생은 “기숙사 입주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우천복사 샤워실에 칸막이가 없어 불편함이 있다”며 “샤워실에 커튼 설치 또한 건의했는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부처장은 “시설 점검을 통해 칸막이 등 추가로 필요한 설비가 있다면 관련 부서와 협의해 설치하겠다”고 답했다.

야간 소속 학생이 겪는 불편함에 관한 개선 요구도 있었다. 김예령(UCT 1) 학생은

“수업이 끝나면 학생식당과 교내 매점이 모두 문을 닫는다. 야간 소속 일부 학생의 경우 학교 밖에 있는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밥을 먹어야 하는 일이 많아, 비용 부담이 커진다”며 불편을 토로했다. 정순선(총무인사팀) 팀장은 “현재 산들푸드 측과 운영시간 연장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더 나은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밖에 냉·난방 중앙제어 해제, 학생복지위원회에 위치한 인바디 기기의 낙산관 체력단련실 이전 등도 함께 요청됐다. ▲장학금 규모 확대 ▲공모전 개수 확충 ▲비교과 프로그램 관련 개별 공지 ▲소속감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개설 ▲취·창업 프로그램 확대 등 장학금 및 비교과 프로그램과 관련한 요구사항도 이어졌다.

이번 행사와 관련해 이 총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방역 조치가 상당 부분 완화됐기 때문에, 앞으로 자주 이 같은 행사를 개최해 학생들이 대학본부에 어떠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지 등을 청취함으로써 정책의 품질을 더 높이고자 한다”고 전했다. 행사에 참여한 심 학생은 “총장님을 비롯해 다양한 대학본부 관계자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건의 사항을 이야기할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유성 기자 meteor11@hansung.ac.kr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개선할 대책 강구 예정

본교 일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하는 비장애인 주차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연구관 지하 2층 ‘ADT캡스(이하 캡스) 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 외부 좌측에는 2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존재한다. 이곳에 캡스의 오토바이가 주차돼 있거나, 주차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된 캡스 오토바이

구역을 가로막고 있는 모습이 확인됐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표지가 없는 차량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다. 또한 같은 법 제17조 제5항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각각 과태료가 부과된다.

캡스 측은 주차 공간이 여의치 않은데다, 긴급 출동을 하려면 종합상황실과 가까운 곳에 오토바이가 있어야 하기에 그간 해당 구역에 주차해왔다고 설명했다. 이규환(캡스 한성대학교사업장) 팀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 위법인 것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마땅한 주차공간

이 없었다”며 “총무인사팀과 논의해 해당 구역을 침범하지 않는 주차 공간을 찾아 보겠다”고 말했다.

총무인사팀 또한 주차 공간이 충분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밝혔다. 해당 주차구역을 일반 주차구역으로 전환하고, 다른 곳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순선(총무인사팀) 팀장은 “종합상황실 앞은 대형 차량이 드나드는 길이라 주차 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것”이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어디로 옮길지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의한 후, 캡스의 출동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전했다.

신지원 기자 idj_b01@naver.com

길고양이 급식소 봉사자 모집

성북구청에서 오는 26일까지 길고양이 공식급식소(이하 급식소)를 관리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급식소는 설치 시부터 올해 12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현재는 성북구청이 ‘성북근린공원에 급식소 1곳을 시범 설치해 관리 중에 있다.

자원봉사자는 성북구청의 ‘성북구 길고양이 공식급식소 설치 및 운영기준’에 따라 ▲먹이주기 ▲청결관리 ▲개체수 관리 ▲개인위생 관리를 담당한다. 성북구 주민에 게만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모집 시 제출한 급식소 후보지가 선정돼야 선발 대상이 된다. 또한 기존에 신청한 지역에서 길고양이 밥자리를 운영하던 사람을 우선 선발할 방침이다.

급식소는 성북구 관내의 소공원 및 근린공원** 내부에 4곳이 조성된다. 성북구청은 신청받은 후보지 현장을 조사한 다음, 관련

부서와 민원 발생 사항 여부 등을 고려할 계획이다. 더불어 공원의 이용 및 관리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급식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유정연(성북구청 동물보호팀) 주무관은 “공식급식소 설치 시 자원봉사자의 책임 있는 관리를 통해 불결한 밥자리 정리, 도시미관 정비 등을 포함해 길고양이에 대한 우호적 인식 확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나아가 동물과 인간의 건강한 공존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소공원 :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규모 토지를 이용해 도시에 설치된 공원
**근린공원 : 같은 법에 따라 생활권 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거주지 인근에 조성된 공원

박건희 기자 enqk@hansung.ac.kr

한성대신문 독자칼럼 모집

문득 찾아온 선물 같은 당신의 글을 기다립니다

- 지원자격 | 한성대학교 재학생
- 주 제 | 자유 주제
- 분 량 | 제목 제외, 공백 포함 약 1,100자 (200자 원고지 기준 5.5매)
- 혜 택 | 비교과 포인트 10pt 지급
칼럼이 신문에 게재될 시 소정의 원고료 지급
- 모집기간 | 상시 모집

- 접수방법 | 한글 프로그램으로 칼럼을 작성하여 hansungnews@gmail.com으로 제출
* 제출 시 칼럼제목/이름/학과 및 제1트랙/학년/연락처/계좌번호 함께 기재
- 문 의 | 한성대신문사 02)760-4186
카카오톡채널 @hansungnews
인스타그램 @hansungnews
페이스북 @hansungpresscenter

긴장 팽팽했던 노동절대회... “생존 위한 투쟁”

노동자의 외침이 거리에 울려 퍼졌다. '2023 세계노동절대회(이하 노동절대회)'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주도로 지난 1일 개최됐다. 민주노총은 이날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을 정부에 촉구하며, '7월 총파업'을 결의하는 등 총력을 다해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133년의 역사에 빛나는 5월 1일 노동절, 그 유래는 19세기 중반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노동자를 착취한 대가로 자본주의가 급속도로 발전하던 19세기 중반, '하루 8시간 노동제'의 관철이 노동자에게 있어 중요한 문제로 자리 잡았다. 이에 1886년 5월 1일, 8시간 노동제의 쟁취를 위해 '미국노동조합총연맹'이 총파업을 일으켰고 이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가 목숨을 잃거나 다쳤다. 이후 1889년, 3년 전 미국 노동자들의 희생을 기념하기 위해 프랑스 파리에서 5월 1일을 노동절 삼기로 결정했으며, '민국의 노동자가 단결해 노동자의 권리쟁취를 위해 동맹파업하자'는 결의를 다졌다. 이처럼 노동절은 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한 행동의 첫걸음으로 기억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노동자 투쟁은 현대에 이르러 활발히 전개됐다. 1970년 유명무실했던 『근로기준법』의 준수를 외치며 분신한 전태일 열사가 있었고, 기업의 부당한 대우와 정부의 무력 행사에 여성 노동자들이 농성으로 대응한 'YH사건'이 있었다.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광산 노동자들이 기업의 노동조합(이하 노조) 활동 개입, 부당임금 등에 크게 반발했던 '사복사건'과 한국전쟁 이후 최초의 대규모 동맹파업이었던 '구로동맹파업'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후에도 노동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사회에 목소리를 내며 권리 신장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렇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일하기 좋은 나라'로 거듭났을까. 직장감질119와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이 산업재해 신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살로 인한 산업재해 신청이 2019년 72건에서 2021년



▲지난 1일 세종대로, 노동절대회 현장

158건으로 급증했다. 또한 2019년에서 2021년까지 산업재해로 인정된 자살 161건 중 58건의 원인은 '과로'였다. 올해 3월에는 대구광역시 건설노동자가 과로로 인해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죽을 때까지 일하는 것이 먼 과거의 일이 아니다.

노동자들이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것조차 아직 먼 길처럼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업별로 노조가 구성되고, 그 노조가 각 기업과 협상하는 '기업별 교섭' 방식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최근 산업 구조 변화로 인해 늘어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간접고용종사자 등에게는 기업별 교섭이 적합하지 못한 방식이다. 사업장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고 영향을 주고 받는 사용자 또한 여러 명이기에, 특정 기업과 협상하는 방식으로는 노동자의 목소리가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산업별로 노조를 만들고, 교섭 또한 산업 단위로 이뤄져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된다.

이처럼 노동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에 목소리를 내고,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광장에 모였다. 민주노총은 지난 1일 서울을 포함한 전국 15곳에서 노동절대회를 개최했다.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

린 노동절대회는 대회사와 연대사, 각 노조 대표자의 발언과 격문 낭독, 행진의 순서로 진행됐다. 대회사에서 양경수(민주노총) 위원장은 "산업별 교섭을 보장해야 모든 노동자가 함께 승리할 수 있다"며 "세계노동절 정신에 따라 성별, 나이, 인종, 국적을 넘어 모두 함께 투쟁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연대사를 맡은 하원오(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위한 투쟁에서 시작된 날이 바로 노동절"이라며 "농민과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자"고 전했다.

이후 발언을 위해 단상에 오른 김정원(전국금속노조 서울지부 LG케어솔루션지회) 지회장과 박안규(전국민주일반노조연맹) 부위원장은 특수형태고용종사자가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을 꼬집으며 함께 투쟁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뒤이어 격문은 양 위원장이 대표로 낭독했다. 마지막 순서인 행진은 세 갈래로 갈라져 진행됐다. ▲전국건설산업노조연맹 ▲전국공무원노조 ▲전국교수노조 ▲전국대학노조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전국민주일반노조연맹 ▲전국언론노조 ▲전국민주여성노조 ▲전국교직



▲노동절대회에 참여한 공공운수서비스노조 구성원들이 현수막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원노조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조연맹 ▲전국화학식품유제품산업노조는 서울역을 거쳐 용산 대통령실로 향했고, ▲전국금속노조 ▲전국사무공무원서비스노조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은 광화문을 지나 헌법재판소 방면으로 행진했다. 전국공공운수서비스노조는 종로를 통과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까지 나아갔다. 행진하는 동안 노동자들은 '월급말고 다 올랐다 최저임금 대폭인상'과 같은 노동문제와 관련한 문구는 물론, '전세사기 물가폭등'이나 '안전인원 충원으로 지하철안전 확보하자' 등 각종 사회 현안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는 글귀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보였다.

이날 노동절대회에는 청년들도 함께했다. 과거 민주화 운동에 헌신한 선배들을 기림과 동시에, 노동권 등의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고려대학교 민주학생기념사업회'가 참가했다. 고려대 사회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장하진(고려대학교 민주학생기념사업회) 위원은 "일상 속에서 노동자와 연대하기 위해 나섰다"며 "이주노동자나 대학 내 청소노동자 등 여전히 권리 실현이 어려운 노동자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 현장으로서의 대학에서 활동하는 노조들도 이번 행사에 참여했다. 권용석(전국공공운수서비스노조 전국대학원생노조 지부) 조합원은 "전 세계 노동자들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노력을 기념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행사"라며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대학원생의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참석했다"고 전했다.

한편, 임기 중 두 번째 노동절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은 현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에 대해 다시 한번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1일 그의 페이스북에 "진정한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기득권의 고용세습은 확실히 뿌리 뽑을 것"이라 작성했다. 정부·여당과 노동계는 여전히 대립을 좁히지 않은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근로계약이 아닌 업무위탁 등을 체결하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자로,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등이 있음
**간접고용종사자 :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고, 파견이나 하청 등의 방식으로 사용자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자

정상혁 기자 normalhyeok0927@hansung.ac.kr

'ROTC' 총알 떨어진 군, 장교 수급 비상

'학생군사교육단(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이하 ROTC)'에 커진 빨간 불이 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흔히 학군단으로 불리는 ROTC는 일부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을 선발해 졸업과 동시에 소위로 임관시키는 제도다. ROTC는 ▲소위 ▲중위 ▲대위를 일컫는 초급 장교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국방부의 「2022 국방통계 연보」에 따르면, 2015년 육·해·공군 및 해병을 합쳐 4.8:1이었던 학군사관후보생(이하 후보생)의 모집 경쟁률은 2021년 26:1로 반토막 났다. 매년 소위로 임관하는 후보생 수 역시 2018년에는 4,111명에서 2023년 3,368명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후보생 지원 감소는 왜 문제일까. 군의 전투력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매년 임관하는 소위의 70%가 ROTC를 통해 배출되고 있으나, 경쟁이 감소함에 따라 우수한 후보생의 선발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명렬(한밭대학교 학생군사교육단) 교수는 "후보생 지원율이 감소함에 따라 초급 장교의 자질 약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후보생 지원을 감소는 복무기간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ROTC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육군을 기준으로 병사는 복무기간이 18개월이지만, ROTC는 28개월이다. 징병 대상인 남학생의 경우, 병사보다 복무기간이 긴 ROTC 지원을 망설인다는 것이다. 「2022 국방통계 연보」에 의하면, 2021년 여학생의 경쟁률은 4.6:1이었던 반면 남학생의 경쟁률은

23:1에 그쳤다. 김 교수는 "징병제 국가이기에 ROTC를 병역의무 대체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복무기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ROTC 활동으로 다양한 경험을 할 기회가 제한되는 것도 지원율 하락의 원인으로 꼽힌다. 학기 중 교내교육, 방중 임영훈련뿐만 아니라 휴학마저 제한돼 소위 '스펙'을 쌓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휴학 기간은 1년 단위로만 가능하며, 자기 개발, 개인 사정에 의한 휴학은 제한된다. 횡수 또한 1회만 가능하다.

물질적인 면에서 초급 장교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주장도 있다. 2023년 기준, 소위 임관 후 받는 첫 월급은 약 178만 원이나, 병사는 병장 기준 100만 원으로 매년 상승해 왔다. 또한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단기복무장려금' 외에 매달 지급되는 일종의 생활지원금인 '교보제비'는 2017년부터 68,120원으로 고정돼 있다. 그 때문에 대학생들과 교내교육, 임영훈련을 병행해야 하는 후보생이 생활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현진(한국국방연구원 국방인력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초급 간부의 경우 의무복무를 하러 온 이들이라는 논리가 작용해 임금이 낮게 책정된 경향이 있다. 병사의 월급이 인상되는 상황에서 초급 간부 복무 시의 기회비용을 고려해 보수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교수는 "후보생은 학비 문제보다 생활비 부분에서 어려움이 크다. ROTC 활동을 병행하다 보니 다른 일에 투자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작금의 상황에 가장 우선돼야 할 조치는 복무기간 단축이라는 입장이 압도적이다. 『군인사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3년으로 규정된 ROTC의 복무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다. 정기주(동명대학교 학생군사교육단) 교수는 "현재 국방부에서 ROTC의 복무기간을 4개월가량 감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휴학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역시 제시된다. 후보생이 전역 이후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여학연수, 인턴십 활동 등을 위한 휴학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윤대엽(대전대학교 군사학과) 교수는 "사회가 변화하며 장교 복무 경력이 취업 경쟁력과 직결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교수는 "후보생 생활하면서 개인적인 경력을 쌓는 것에 시간적 어려움이 존재한다. 휴학 허용기준을 완화하는 등 후보생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물질적 보상의 확대를 넘어 복무 이후 사회 진출도 고려해 지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장교라는 직업에 있어 금전적 보상은 일차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윤 교수는 "군인은 책임과 헌신을 사명으로서 하는 직업이다. 단순 물질적 보상만으로 역량 있는 장교 인력을 확보할 수 없다"며, "투자 차원의 종합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언했다.

김기현 기자 kimjihun30@gmail.com

마을버스가 현수막을 붙인 이유

'마을버스 환승제도 탈퇴!', '8년째 요금동결! 즉각 인상하라'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이하 마을버스조합) 소속 마을버스 운영업체들이 지난 6일부터 마을버스에 붙인 현수막의 내용이다. 서울시에서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업체들이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마을버스 요금 인상 또는 보조금 확대를 요구하며, 환승제도 탈퇴까지 불사한다고 나섰다.

마을버스 업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승객이 급감한 데 이어, 연료비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마을버스조합에 따르면, 2015년부터 8년간 서울시에서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업체 139곳 중 113곳, 즉 81.3%가 적자에 시달렸다. 그럼에도 성인 기준 마을버스 요금은 8년째 900원에서 제자리걸음이다. 서울시는 당초 지난달에 요금 인상을 계획했으나, 이를 하반기로 연기하며 정확한 인상 시기는 불투명해졌다.

마을버스 업체가 어려워진 또 다른 이유는 '민영제'다. 서울시 시내버스의 경우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민간 업체가 노선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만 서울시에서 적자를 메우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는 운송원가와 수입금의 차액만큼을 보조금 명목으로 보전받는다. 그러나 민간업체도 운영되는 마을버스는 시내버스와 달리 보조금에 상한선이 존재해,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보조금 상한선은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않고, 2년째 동결돼 있다. 보조금을 제외한 적자는 민간 업

체가 오롯이 부담해야 한다. 장재민(한국도시정책연구소) 소장은 "보조금 상한선을 현재 물가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어려움이 지속되다 보니, 마을버스 업체들은 운전기사의 봉급을 올릴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자연스럽게 기사의 수급 또한 시내버스에 비해 어려워졌다. 마을버스조합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시내버스 기사의 월평균 임금은 약 440만 원으로, 약 290만 원인 마을버스 기사의 임금과는 차이가 난다. 실제로 2022년 서울시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데 필요한 인원은 3,885명이었지만, 재직자 수는 2,850명으로 1,035명이 부족했다. '성북 02'를 운행하는 성삼운수의 김종민(성삼운수) 대표는 "많은 기사 인력이 배달업 등 다른 직종으로 이동해 구인난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결국 요금 인상 및 적자지원 상한선 상황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압도적이다. 시내버스나 지하철이 다니지 않는 '교통소외 지역'을 누비는 마을버스의 가치를 고려해, 희생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박주운(마을버스조합) 전무는 "버스 요금 인상 시기를 연기했으나, 요금 인상 시까지 적자 보전을 위한 재정지원이 더 많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는 교통약자의 '교통복지'를 위해서도 시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운송원가: 시내버스 운송사업에 소요되는 1일 1대당 운송비용

김유성 기자 meteor11@hansung.ac.kr

Music



아이돌 덕질, 팬들이 움직인다

“요즘 애들은 왜 그래?” 어느 세대가 그랬듯, 현 젊은 층도 자주 듣는 물음이다. 진짜 요즘 애들은 왜 그럴까? 그래서 알아봤다. MZ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것만 보면 사족을 못 쓰고 달려드는 기자가 그 속으로 뛰어들었다. MZ세대의 대표주자인 기자를 따라 청년이 열광하는 것을 파헤쳐보자.

당신은 아이돌을 좋아하는가? 좋아한다면 ‘어떻게’ 행동하는가. 지금의 청년은 10년 전이라면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그들의 가수를 사랑한다. 청년이 아니라면, 팬이 아니라면 알 수 없는 지금의 아이돌 덕질 문화부터 앨범과 포토카드를 시작으로 퍼져나가는 ‘탑꾸’와 ‘예절샷’까지 그 달음질을 따라간다.

박희진 기자 furi1120@naver.com

좋아하는 방식도 갖가지더라

젊은 층 사이에서 아이돌 팬 문화가 예전과는 다른 기세로 시시각각 발달하고 있다. 최근의 아이돌 팬은 과거보다 능동적이라고 분석된다. 이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직접 가수의 굿즈를 제작해 판매하는 양상까지 보인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결합한 일명 ‘프로슈머(프로듀서+컨슈머)’가 돼가는 것이다. 김현식 문화평론가는 “과거와 달리 다양한 플랫폼이 형성돼 팬들이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팬 문화가 활성화된 것에는 기술의 발전이 한몫했다. 기술이 발전하며 현수막 및 스티커 제작 등이 어렵지 않게 되면서, 팬들은 스스로 일종의 2차 창작물을 만들어 내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 2차 창작물을 판매하고 나누며 팬들은 서로의 멤버십을 공유한다. 여기서 멤버십이란 같은 아이돌을 좋아하는 팬이라는 사실, 나아가 팬으로서의 자격이나 지위를 의미한다. 이은철(덕성여자대학교 문화인류학전공) 교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멤버십을 소비로 보여주려는 시도가 아이돌 팬덤까지 확장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그룹 내 특정 멤버만을 좋아하는 팬 문화도 발달하기 시작했다. ‘H.O.T’, ‘동방신기’ 시절을 생각해보자. 팬이라면 그룹 전체를 응원하고 지지하던 것이 자연스러웠다. 그러나 서바이벌을 통해 아이돌 그룹을 만들었던 ‘프로듀스 101’을 기점으로 팬덤 형태가 멤버 개인을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교수는 “한 그룹을 모두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다 함께 응원봉을 들고, 하얀색 우비를 입는 등의 팬덤 문화와 더불어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팬덤들도 세분화·구체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앨범, 사고 또 사고!

2016년에 ‘방탄소년단’ 앨범을 사 모으던 시기를 마지막으로, 아이돌 세계에는 문외한이 됐던 기자가 지금의 음반시장을 들여다봤

다. 젊음의 거리, 홍대의 한 음반 판매점인 ‘비트로드’에는 온갖 아이돌 앨범이 사방으로 진열돼 있었다. 그런데 매장 안에는 특이한 공간이 마련돼 있었다. 음반들 사이에 자리한 책상이 그것이다. 책상 위에는 촬영용 휴대폰 거치대와 앨범 개봉 시 사용할 수 있는 칼이 놓여있다. 이곳은 팬들이 ‘앨범깡’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앨범깡은 ‘음반을 개봉한다’는 뜻의 은어다. 팬들은 앨범을 열어 동봉된 랜덤 구성품 중 하나인 ‘포토카드’를 확인한다. 자신이 특히나 좋아하는 그룹 멤버의 사진이 나오길 기대하며 말이다. 가톨릭대학교 공간디자인·소비자학과 2학년 재학 중인 김현우 학생은 “앨범을 구매하는 것은 앨범 그 자체보다 그 안에 포함된 포토카드를 얻기 위함”이라며 “남은 앨범은 스크랩하는 등 다채롭게 사용해 비용은 아깝지 않다”고 전했다.

앨범깡, 어떤 감정으로 임하는지 알아보자 비트로드에서 앨범 하나를 구매해봤다. 구성품이 가장 잘 보이는 앨범으로 선택했다. 앨범을 개봉해보니 CD와 멤버 캐릭터 모양의 작은 등신대, 보드게임을 할 수 있을 법한 종이 한 장, 그리고 포토북이 나왔다. 청년들이 그리고 고대하는 포토북은 포토북 사이 그 어딘가에서 대기 중인 테다. 포토북을 조심스럽게 넘겨 포토카드가 담긴 장을 발견했다. 주위에 있던 기자들과 함께 어떤 멤버가 나올지 맞히는 시간도 가졌다. 앨범깡을 해보니, 과정에서 오는 짜릿함을 무시할 수 없었다. 내가 좋아하는 멤버가 나올지 대 반 걱정 반의 시간이 즐겁게 다가온다. 어떤 멤버의 어떤 사진이 담겨있을지 설레하며 즐길 수 있었다. 김 학생은 “같은 팬덤 내 팬들과 함께 앨범을 개봉한다면 떨림과 기쁨을 나눌 수 있어 느끼는 감정이 배가 된다”고 말했다.

구성품인 포토카드를 위한 앨범 소비가 증가하니, 일각에서는 포토카드 외에 버려지는 CD로 인한 환경오염을 우려한다. 이러한 우려를 기업 측도 인지한 듯, 최근 ‘키노앨범’이라는 새로운 종류의 앨범이 등장했다. 키노앨범은 스마트폰을 통해 앨범 속 음악을 저장할 수 있어 CD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장점이 있다. 김 문화평론가는 “새로운 앨범 형식의 등장은 바람직한 시도”라면서도, “기존의 CD를 대체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키노앨범, 기자도 하나 구매해 봤다. 아이돌 팬의 성지로 불리는 광화문의 한 음반 판매점에 방문했다. 기자가 구매한 앨범은 키노앨범과 포토카드만 이뤄져 있는 작은 크기였다. 구매해 보니 알겠다. 키노앨범은 작은 크기에서 오는 메리트가 분명했다. 포토카드와 ‘항상’ 같이 들고 다니기에 휴대하는 데 거침이 없는 것이다. 김 학생은 “앨범 크기가 작아 열쇠고리로 사용할 수 있고, 언제든지 그 앨범을 휴대폰과 연결하면 앨범 속 노래를 들을 수 있어 구매한다”고 덧붙였다.

내 가수만큼이나 소중한 포토카드

앨범깡으로 어렵게 구한 좋아하는 멤버의 포토카드, 대중 보관하기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젊은 팬들 사이에서는 포토카드를 보관하는 방법도 가지각색이다. 그중 최근에는 ‘탑꾸(탑 로더 꾸미기)’가 크게 확산되고 있다. 탑 로더(Top loader)는 위로 뚫린 입구로 포토카드를 넣어 보관할 수 있는 PVC 재질의 보관함이다. 팬들은 탑 로더의 둘레를 데코덴과 레진, 다양한 파츠를 활용해 꾸민다. 탑꾸는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멤버의 포토카드를 한층 더 빛나게 하는 역할을 한다. 김 문화평론가는 “단순히 포토카드 모으기에 ‘꾸미기’를 더해 나름의 가치를 부여하는 행위로서 그 시도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주변 아이돌 팬 친구들이 하는 것을 바라보다 보니, 이 역시도 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키노앨범을 구매하며 얻은 포토카드를 꾸며보기로 결심했다. 동대문종합시장으로 향해 액세서리 부자재를 판매하는 층으로 향했다. 가게면 가게마다 탑꾸를 하고자 부자재를 고르는 청년들이 바글바글했다. 끝도 없이 쏟아지는 파츠 종류에 고민과 구매의 시간은 길어져 갔다. 파츠와 함께 탑 로더도 판매하고 있어 일괄 구매했다. 탑 로더에 포토카드를 넣고 그 위를 꾸미기 시작했다. 직접 해보니 소소한 즐거움이 있었다. ‘양모 펠트’ 하트 10개도 얇은 자리에서 푹푹푹 만들어 낼 수 있겠다는 소리로 났어왔다. 하나의 취미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충분히 보였다.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2학년 재학 중인 이서진 학생은 “갖고 있는 포토카드를 더 예쁘게 보고 싶다”며 “지인과 만날 때 포토카드를 들고 사진 찍는 경우가 많아 화면에서 화려하게 보이고 싶은 마음에 탑꾸를 한다”고 부연했다.

청년의 포토카드를 향한 열정은 앨범을 개봉하는 순간을 넘어 식사 시간에도 함께한다. ‘예절샷’을 남기는 것이다. 예절샷이란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왔다는 인증을 위해 포토카드와 음식을 함께 찍어 예절을 차리는 행위다. 기자도 덕질에 일가견이 있는 친구를 만나 포토카드를 빌려 예절샷을 남겨봤다. 음식 위로 포토카드를 들고 사진을 남기니, 같은 취향을 공유하는 사람과의 즐거움 순간이 더해진다. 이 학생은 “단순히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 예절샷이라는 하나의 이벤트를 곁들임으로써 재미가 더해진다”고 설명했다. 포토카드를 활용한 예절샷에 대해 이 교수는 “취향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같이 있는 것을 알리는 장치가 된다”며 동시에 “아이돌 팬덤은 종교적인 영역이라고 생각되는데, 포토카드가 아이돌의 분신으로서 작용하는 부분도 있다”고 전언했다.

*양모 펠트 : 양모 섬유에 열 수분, 압력, 일칼리 따위를 가해 섬유가 서로 엉키고 줄어들게 해서 일정한 형태로 고정하는 일

추천 뮤직비디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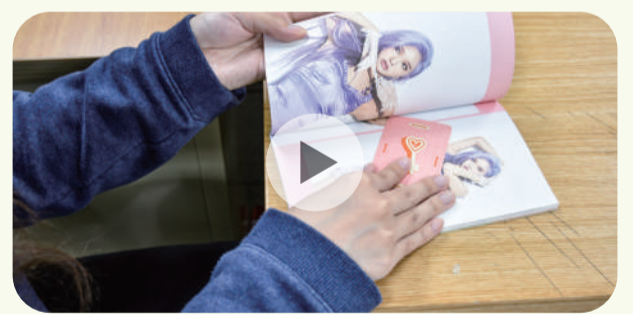
더보기



마포구에 위치한 음반 판매점 ‘비트로드’의 입구
박희진 · 조회수 1120회



음반 판매점 ‘비트로드’의 내부
박희진 · 조회수 725회



‘앨범깡’을 하고 있는 기자
신지원 · 조회수 700회



음반 판매점에서 구매한 키노앨범
박희진 · 조회수 728회



데코덴과 파츠로 만든 ‘탑꾸’의 결과물
박희진 · 조회수 4186회



음식 위에서 찍은 ‘예절샷’
박희진 · 조회수 2030회

팬들이 가수를 사랑하는 방법



테마파크의 '뉴 패러다임', 그 중심에 서다

모노리스 김종석 공동대표

(편집자주)

회전목마와 대관람차가 돌아가고, 롤러코스터를 탄 사람들이 비명을 지른다. '테마파크'를 생각하면 흔히 떠오르는 풍경이다. 그러한 고정관념에 제대로 도전하는 테마파크가 있으니,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한 '9.81파크 제주(이하 9.81파크)'다. 9.81파크는 다른 동력원 없이 '중력가속도로만 달리는 레이싱 차량', '메타버스를 활용한 놀이' 등 기존 테마파크에서 찾기 힘든 즐길거리로 이뤄져 있다.

9.81파크에 다녀간 사람은 작년 한해 기준 50만여 명이다. 엄청난 규모와 체계적인 시스템에 감탄하며 굴지의 기업 중 어느 곳이 제주에 테마파크를 만든 것인지 알아보려 검색창을 켜다. 아니 그런데, 스타트업이 만들고 운영하고 있다고? 2014년 기준 10명을 밀도는 인원으로 시작한 스타트업이 제주에 테마파크를 만들었다. '모노리스'의 김종석(47) 공동대표는 테마파크의 새로운 유형을 제시했다.

그는 어떻게 성공한 스타트업 사업가가 될 수 있었을까. 그만의 특별한 경험과 목표하던 바를 쫓아가다 보면, 그의 성공 비결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자신이 잘하고 좋아하는 일들을 이어가다 보면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그의 조언은 비단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닐 것이다. 창업 솔루션을 넘어 '인생 솔루션'을 들여보기 위해 그를 만났다.

정상혁 기자 normalhyeok0927@hansung.ac.kr



사진 제공 : 모노리스

"제대하고서야 정신을 차렸죠." 김 대표가 자신의 대학생활을 회고하며 던진 첫 마디다. 온라인 게임 등을 즐기며 대학 시절을 보내던 김 대표는 졸업이 다가올 무렵부터 취업을 위한 준비에 뛰어들었다. 건축공학을 전공한 그는 건설회사 취업을 위해 성적을 쌓고, TOEIC 점수를 높여갔다. 그러던 과정에서 뒤늦게 스스로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됐다.

"복학 후 모든 계절학기 수업을 수강하며 성적을 만회하느라 바쁜 시간을 보내다가, 졸업과 취업을 코앞에 둔 시기에 와서야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건설회사에 이력서를 내는 것이 맞을까? 나는 과연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을까? 저 자신에게 끝없이 질문을 던졌죠. 결국 저는 저만의 사업을 꾸려나가고 싶다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창업"이라는 답을 찾은 김 대표는 꿈을 이루기 위해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했다. 그는 '영업' 직무와 '자본'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영업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한 준비 과정과 실제 판매를 담당하는 직무로 일컬어진다. 자신만의 기업을 운영하며, 물건을 판매하는 입장에 서고 싶었던 그에게 영업은 필수적인 영역으로 다가왔던 것이다.

"영업을 배울 수 있는 회사가 어디인지 찾아보던 중, '피시스'라는 사무용 가구 업체가 영업 직군의 신입사원을 선발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건축공학 전공자 우대'라는 글귀에 이끌려 지원했죠. 입사 후 '특수사업팀'이라는 곳에 배정됐는데, 약 2년 동안 학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가구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시장조사, 사업 기획, 제품 출시, 전국 영업망 구축 등을 경험했어요. 영업에 관한 거의 모든 실무였죠."

김 대표는 영업에 대해 알고 나니, 비로소 자본에 대해 배울 시기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회고했다. 기업이 경영 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금, 즉 자본이 기업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부분도 창업을 위해 김 대표가 알고 가야 할 부분이었다. 대다수의 기업은 투자를 통해 자본을 마련하기에, 투자업계에서의 경력은 그에게 필수였다. 하지만 전공도, 경력도 투자업계와는 무관한 20대를 원하는 회사를 찾지 못한 '하늘의 별 따기'였다.

"주변에 투자업계에 종사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꼭 좀 소개해 달라'는 말을 지인들에게 전하고 다니던 어느 날, 투자회사 설립을 준비 중인 분과 만날 수 있게 됐어요. 몇 번의 만남 끝에 채용됐죠. 첫 해에는 엄청난 수익을 기록했지만, 두 번째 해에는 분야를 가리지 않고 공격적으로 투자하다 많은 수익을 잃었어요. 결국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했죠.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투자자들의 자금을 운용하며 적절한 수익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었던 것이예요."

실패를 겪고 방향하던 그는 '한국엠엔에이'라는 회사에서 일하게 됐다. 당시 국내 굴지의 벤처투자회사 'KTBN 네트워크'를 산하에 둔 기업이었기에, 그가 자본과 투자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곳이었다. 김 대표는 수많은 IT벤처기업의 창업과 도산을 현장에서 지켜볼 수 있었고, 덕분에 그는 오랜 꿈인 창업에 관한 생각을 키워나갈 수 있었다고 전연한다.

"IT 분야의 유망한 벤처기업을 발굴해 투자하는 일을 맡았어요. 수백 개의 IT기업을 접하며 교훈을 얻을 수 있었죠. 경영자의 천재성이나 기발한 사업 아이템을 가진 기업은 단기적으로 시장의 이목을 끌어도 오래가지는 못했어요. 결국 성공하는 기업은 강한 실행력과 끈기를 가진 회사죠. 기업의 성과 과정을 지켜보니 자연스럽게 창업에 대한 열정이 끓어올랐고, 저만의 사업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 대표가 꿈을 이를 준비를 해야겠다고 다짐하게 한 요인이 하나 더 있었으니, 바로 '아이폰'이다. 그는 아이폰 출시를 기점으로 시대의 흐름이 PC

에서 스마트폰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했다.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서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할 가치는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 해답은 '오프라인'에 있었다.

"PC 시대에는 사람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있을 때만 연결이 가능했지만, 스마트폰의 시대에는 항상 연결돼 있을 수 있잖아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24시간 내내 서로 연결돼 생각하고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변화를 몰고 온다고 판단했어요. 그렇기에 미래에도 절대 변하지 않을 가치는 무엇일지 고민했죠. 그 결론은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육체적 활동이었고요. 현실에서 내 몸의 오감을 사용하는 레저나 스포츠 등의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 생각한 것이예요. 대신 평범하지 않게 레저에 IT 기술을 접목시켜 경험을 콘텐츠화하는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이렇게 그는 창업에 있어서 빛나는 선구안과 빠른 판단력을 지녔다. 그러나 신중한 태도를 잃지 않았다. 벤처투자업계에 몸담으며 수많은 기업의 실패를 엿본 그였기에, 남다른 준비 과정이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앞선 것이다. 김 대표는 영업이나 자본과는 또다른 영역, '경영' 그 자체에 대해 더 알아야 한다고 판단했고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에 진학하기로 한다. 창업의 동반자를 찾은 곳도 대학원이라는 점에서, 이 결정은 그에게 있어 큰 전환점이었다.

"좋은 사업 아이템, 영업 능력 등을 가지고도 실패하는 수많은 사례를 보면서, 일하면서 배운 것들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경영학 이론을 배우면서, 투자업계에서 일하며 배웠던 부분들이 융합되고, 하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됐죠. 함께 창업한 김나영 공동대표를 만난 곳도 대학원이에요. 패션업계에서 해외사업전략을 담당하던 친구와 저와는 커리어가 완전히 달랐지만, 재미있게도 미래를 보는 눈은 비슷했어요. '육체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귀해질 것이다. 신기술은 오프라인 경험을 고도화시키는 데 사용하면 된다...' 대략 이런 맥락의 대화를 자주 나누고, 서로 공감도 많이 했어요. 이 친구라면 같이 사업해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어, 함께 창업할 것을 제안하니 웃으며 'OK' 하더군요."

만반의 준비를 거쳐 사업을 시작한 그였지만, 창업 초반에는 당연히 어려움이 뒤따랐다. 김종석 대표는 주변의 부정적 시각과 그에 따른 투자 유치의 실패를 창업 초반기의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 꼽았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일토당도한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다.

"처음에는 '미친놈' 소리를 듣기까지 했죠. 무수히 많은 거절을 겪어야 했어요. 보수적인 시선들을 뛰어넘으려면 눈으로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레이싱 차량의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이후에 더 개선된 모델을 만들어서 시범을 보이기도 했어요. 저희의 실행력과 진정성을 인정받았는지, 2016년에 3곳의 벤처 캐피탈에게 지속적인 투자를 받기 시작했죠."

9.81파크는 '레이싱'을 중심으로 두고 있다. 때문에 핵심 어트랙션도 제주의 풍경을 감상하며 달리는 '레이스981'이다. 그는 비탈진 곳에서 동력원이 없는 카트를 타고 노는 'Gravity Racer'라는 유럽의 놀이 문화를 가져와 발전시켰다. 세 종류의 레이싱 차량 ▲GR-E ▲GR-D ▲GR-X는 전기나 휘발유와 같은 특별한 동력원 없이 중력 가속도만으로도 이동이 가능하다. 초당 9.81m씩 가속도가 붙는 중력 에너지가 차량의 '엔진'이기에, 이름 또한 '9.81파크'로 명명한 것이다.

"모노리스의 사업이 추구하는 큰 방향성은 스포츠에 게임 기술을 접목해 테마파크화하는 것이예요.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스포츠와 레저가 있기 때문에, 그 무궁무진한 소재를 모두 흡수할 만큼 광범위하게 사업 방향성을 설정한 것이죠. 그래서 선택한 것이 Gravity Racer였어요."

이처럼 모노리스는 스포츠와 게임의 요소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재미를

공급하고자 한다. 나아가 김종석 대표는 9.81파크가 하나의 지식재산권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삼고 있다. 9.81파크를 테마파크 브랜드로 만들어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확장한다는 말이다.

"지속적으로 사용자와 호흡하고, 그들의 욕구를 관찰해야 해요. 사용자의 반응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의 세계관을 확장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일이죠. 그렇게 독자적인 브랜드로 9.81파크를 성장시킨 후, 그 기술이나 브랜드 등을 지식재산권으로 만들어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규모를 늘리는 것도 하나의 목표고요."

이처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이라는 꿈을 이뤄낸 김종석 대표가 생각하기에, 창업 성공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는 '끈기'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한다. 고객의 숨겨진 욕구를 찾아내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은 생각보다 험난하기에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천재성 같은 부분은 사업을 시작할 때 중요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끈기예요. 끈기는 추진력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리더십의 형태로 드러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끈기의 이면에 공통적으로 자리한 것은 자기 제품에 대한 강한 확신일 것이예요. 그 끈기가 없다면 오랫동안 매달리기 힘들 수 있어요."

그는 '발상의 전환'이라는 태도도 중시한다. 실패의 가능성을 떠안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로 향하는 자가 큰 성공을 거두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강조한다. 이러한 그의 신념은 모노리스라는 스타트업을 일궈낸 과정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9.81파크가 여타의 테마파크에 없는 특징을 가질 수 있었던 근원이기도 하다.

"발상의 전환이라는 것도 상투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결국 위험을 감수하고 개척되지 않은 길을 가보라는 겁니다. 남들이 해보지 않은 행동을 하고, 남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부분에 의문을 품는 것이죠. '테마파크는 왜 똑같은 놀이기구로 똑같은 경험만을 제공해야 하지? 게임처럼 업데이트해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는 없나?' 9.81파크의 시작이 된 질문처럼요."

그렇다면 청년층이 미래를 설계할 때 중점적으로 바라봐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 그는 자신이 지나쳐 온 점들을 이어 보라고 조언한다. '점'이란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 잘하는 일을 일컫는다. 그리고 주위의 믿을 만한 이들과 자주 대화를 나누라고 말한다.

"본인이 잘하는 일이나 좋아하는 일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전 게임도 좋아했고, 스포츠도 좋아했어요. 투자업계에서는 기술이 사람들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지켜봤고요. 제 모든 경험과 선호가 모노리스 사업에 전부 반영돼 있어요. 제 인생의 점들이 이어진 결과물이죠. 여러분도 점들을 이어서 미래에 무엇을 하면 좋을지 가설을 세워 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지금이 움직여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드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사진 제공 : 모노리스

▲사람들이 9.81파크 제주의 레이싱981을 즐기고 있다.

한양 수도성곽, 세계로의 발돋움

상상관 12층 옥상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이하 세계유산)을 바라볼 수 있다면 어떨까. 4월 13일 문화재청이 '한양의 수도성곽(이하 한양 수도성곽)'을 세계유산 '등재신청 후보'로 선정했다. 올해 9월 문화재청이 유네스코에 예비평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한양 수도성곽은 1년간의 예비평가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세계유산으로서의 한양 수도성곽

한양도성, 북한산성, 탕춘대성을 아우르는 한양 수도성곽은 2021년부터 하나의 유산으로서 세계유산 등재에 도전해 왔다. 한양도성의 경우 2012년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올라 2016년 세계유산 등재신청서를 제출했으나, 2017년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사전심사에서 '등재불가' 판정을 받으며 불가피하게 등재신청을 철회했다. 또한 북한산성은 2018년 잠정목록에 오르는 것에 실패한 바 있다. 기호철(문화유산연구소 길) 소장은 "초창기부터 한양도성과 북한산성, 탕춘대성을 묶어 세계유산 등재를 시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면서도 "시간이 걸렸지만 현재는 '도성 방어체계'라는 제대로 된 등재 방향성이 설정됐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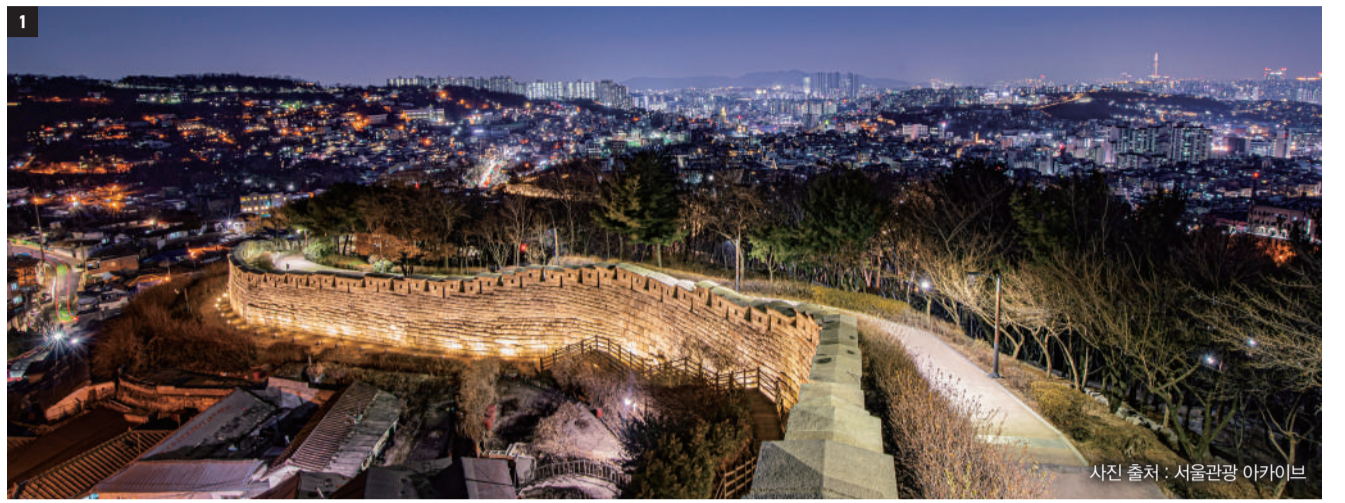
어떠한 유산이 세계유산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지녀야 한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란 국경을 초월할 만큼 독보적이며 현재 및 미래 세대의 전 인류에게 공통으로 중요한 문화 및 자연적 중요성을 의미한다. 이에 유네스코가 10가지 가치 평가 기준을 제시했는데, 문화유산인 한양 수도성곽은 1~VI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만족해야 한다. 이외에도 ▲재질, 기법 등에서 원래 가치를 보유하는 '진정성(Authenticity)' ▲유산의 가치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충분한 제반 요소를 보유하는 '완전성(Integrity)' ▲법적, 행정적 보호 제

도, 완충지역 설정 등 '보호 및 관리체계'가 포함되어야 한다. 과연 한양 수도성곽은 위의 기준들을 충족할까.

현재 한양 수도성곽은 등재기준 중 III(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일 것)과 IV(인류 역사에 있어 중요 단계를 예증하는 건물,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경관 유형의 대표적 사례일 것)에 맞춰 등재를 준비 중이다. 송양섭(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교수는 "한양 수도성곽은 산지의 계곡과 능선 및 수계를 포괄하는 전형적인 포곡식(包谷式) 성곽으로 건설됐다는 점에서 등재기준 III을 충족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곽은 평지의 평지성(平地城)과 전시의 산성을 통합한 한반도 수도성곽의 최종 발전 단계로서 등재기준 IV도 만족한다"고 첨언했다.

또한 진정성과 완전성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보호 및 관리 체계'도 추가될 예정이다. 기 소장은 "한양도성에 북한산성, 탕춘대성까지 포함하면 재질, 기법 등에서 원래 가치를 충분히 지니고 있다. 그리고 세 성곽이 도성 방어체계를 충분히 보여주면서도 그 제반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수(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연구교수는 "행정구역이 나눠진 만큼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한양 수도성곽의 세계유산 등재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김 연구교수는 "지금의 단계까지 왔다는 것은 한양 수도성곽이 그만큼 가치 있다는 증거"라고 전했다. 이어 송 교수는 "한양 수도성곽은 여러 측면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 또한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자양분으로 삼아 실무진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머지않아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1 종로구 창의문에서 북악(백악)산을 지나 해화문에 이르는 한양도성의 백악구간
2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있는 홍지문의 전경. 도성 북쪽에 자리해 한복문으로 불리기도 한 탕춘대성의 성문
3 북한산의 지형에 맞춰 지어진 북한산성의 성곽. 남아있는 북한산성 중 성북구 정릉동에 위치한 일부

한양을 지켜낸 굳건한 방어체계

한양도성은 조선의 수도를 둘러싼 성곽이다. 이러한 도성(都城)은 조선의 도읍인 한성부의 경계를 표시하고, 궁궐과 백성들을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축조됐다. 서울의 사산(四山)인 ▲낙산 ▲남산 ▲북악산 ▲인왕산을 연결하는 만큼 길이는 약 18.6km에 달한다. 그러나 근대화 과정에서 훼손과 복원이 반복돼 현재는 13.1km가량의 구간만 남아 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건국 약 2년 후인 1394년, 개경에서 한양으로 수도를 옮겼다. 경복궁을 비롯한 궁궐과 종묘가 먼저 지어졌으며, 한양도성의 축조는 1396년에 1차와 2차로 나눠 진행됐다. 각각 49일이 소요된 공사에는 총 20만 명의 백성이 동원됐다. 성곽을 쌓으며 도성을 드나들 수



있도록 사대문과 사소문을 설치했다. 사대문은 유교의 네 가지 덕목인 인의예지(仁義禮智)를 이름에 담아 ▲홍인지문 ▲돈의문 ▲송례문 ▲숙정문이라고 명명됐다. 이 사대문 사이에 나 있던 사소문은 ▲해화문 ▲소의문 ▲광희문 ▲창의문이다.

건설된 이후에도 한양도성은 여러 차례 보강이 이뤄졌다. 당초 한양도성의 평지 구간은 토(土)성, 산지와 구름 구간은 석(石)성으로 지어졌는데, 세종 때 평지도 석성으로 수축됐다. 숙종 시절에는 급위영, 어영청, 훈련도감 등으로 구성된 삼군영(三軍營)이 한양도성의 대규모 개축을 담당하기도 했다. 김 연구교수는 "태조 때는 규격화되지 않은 막돌을 사용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방형의 돌을 사용하고, 규격화된 돌의 크기도 커지는 등 축성술이 발달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도성이 당시 사람들의 삶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존재였다고 말한다. 사람들은 한양과 지방을 구분하는 경계선이던 한양도성 성문의 개폐시간에 따라 이동했으며, 죽으면 누구나 성 밖으로 나가야 했다. 권기중(한성대학교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교수는 "도성은 14세기부터 20세기까지 사람들의 유거지 생활공간이었다. 국가의 수도를 보호하는 군사적 기능과 더불어 도성민의 삶과 연계되며 생성된 중층적 가치를 지녔다"고 덧붙였다.

북한산성은 도성의 함락에 대비해 만들어졌기에 유사시 도성민 모두가 이동해 방어할 수 있는 입보성(入保城)으로 지어졌다. 산성이 자리한 북한산은 서울 근교의 산 가운데 가장 높고 산세가 웅장하다는 특징을 가졌다. 최주희(덕성여자대학교 사학전공) 교수는 "한양도성과 지리적으로 맞닿아 도성민이 피난할 입보처로 기획됐다"며 "국내에서 가장 난도가 높은 지역에 축조된 석축산성"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산성은 조선의 19대 임금인 숙종 시절에 지어졌다. 왕과 조정의 피난처를 '보장처(保障處)'라 하는데, 조선의 보장처는 남한산성과 강화도 등이라 강을 건너야 닿을 수 있었다. 그런데 조선은 병자호란 당시 남한산성으로 피란을 갔던 인조가 '삼전도의 굴욕'을 당하거나, 서해에 해적이 출현하는 등 지속적으로 곤욕을 치러 왔다. 이에 숙종은 험준한 지형의 북한산에 산성을 축성하기로 한다. 김우진(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왕실문헌연구실) 정영구원은 "남한산성과 강화도 등은 보장처로서 강을 건너야 한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북한산은 강을 건널 필요도 없고, 도성과 가까운 협지로 적절한 피신 장소"라고 말했다.

전쟁에 대비한 시설이었던 만큼 북한산성은 내부에 다양한 시설을 갖추도록 설계됐다. 왕이 머물면서 지휘소 역할을 하는

'행궁'을 비롯해 군량미를 저장할 수 있는 140여 칸의 창고와 승영사찰, 우물 등이 마련됐다. 송 교수는 "유사시를 대비해 북한산성 내부에는 다양한 군사시설이 마련돼 보장처로서 명실상부한 기능을 갖춘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북한산성은 험준한 지형을 활용해 고도의 기술력으로 지어진 산성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황인규(동국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는 "북한산성은 북한산의 험준한 산악 지형에 맞춰가며 다양한 축성법을 사용해 불과 6개월 만에 완성한 17세기 최고의 단일 군사 유산이다. 방어시설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라고 밝혔다.

탕춘대성은 한양도성과 북한산성 사이를 연결하기 위해 지어진 성이다. 흥제전 일대의 탕춘대(蕩春臺)가 전략적 요충지였기에 적의 통로를 차단할 수 있는 주요한 기능을 더했다. 더불어 군량과 무기 등을 비축하는 창성(倉城)의 역할도 수행했다. 기 소장은 "탕춘대성의 남쪽은 한양도성, 북쪽은 북한산성과 맞닿아 서쪽에만 성곽이 존재한다. 동쪽은 지형이 험준해 적이 넘어올 수 있는 곳만 토성을 쌓았다"며 "탕춘대 일대가 적의 수중에 들어가면 북한산성은 고립돼 지원받을 수 없는 한계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탕춘대성은 본래 북한산성이 완공된 후 착공됐으나, 반대 여론으로 축성이 중단됐다. 이후 영조가 '이인좌의 난'을 겪으며 수도 방어의 중요성을 깨닫고 탕춘대성과 홍지문을 완성한다. 경기 지역의 군무를 맡던 기관인 '총융청'을 탕춘대성 안으로 이전하고, 군량 창고인 '평창' 등도 뒀다. 영조는 백성과 함께 도성을 사수한다는 내용의 『수성윤음』도 반포했다. 이름 역시 '군사력을 단련한다'는 뜻을 담아 '연웅대성(鍊戎臺城)'으로 변경했으나, 연산군 때부터 이어진 탕춘대의 역사가 깊은 만큼 사람들에게 익숙한 탕춘대성이 여전히 쓰이고 있다. 최 교수는 "산성의 길이 좁고 가팔라 곡식을 옮기기 어려워 탕춘대에 성을 짓게 됐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탕춘대성이 도성 방어시스템의 핵심이었다는 평가를 내린다. 탕춘대성이 건립되면서 하나의 방어체계가 완성됐다는 설명이다. 김 정영구원은 "탕춘대성은 북한산성의 외성으로, 도성과 북한산성의 방어 취약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했다. 북한산성과 더불어 탕춘대성은 숙종의 수도권 방어정책과 영조의 도성사수론의 주요한 토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예비평가 : 등재신청 준비 초기 단계부터 자문기구와 당사국 간의 논의를 통해 고품질의 등재신청서 준비 및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될 가능성을 높이고자 유네스코에서 도입한 제도

건강인사이드

‘알레르기비염’, 관리가 답이다

모두가 화사한 봄을 맞이할 때, 고통스러운 이들이 있었다. 시도 때도 없이 코가 가렵고, 재채기가 찾아오는 알레르기비염을 앓는 사람들이다. 알레르기비염 환자는 청년층 사이에서 늘어나고 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알레르기비염의 의사진단경험률은 남녀 모두 20대에 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우리(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내원하는 알레르기비염 환자 중 20대와 30대의 비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알레르기비염은 왜, 어떻게 발생하는 걸까. 알레르기비염은 코점막이 항원에 과민반응을 나타내며 발생하는 질병이다.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원인인 집먼지진드기, 꽃가루 등의 항원이 코점막의 아래 조직으로 침투하면, 항원이 항원 전달 세포에 의해 림프구*와 상호 작용한다. 이때 림프구의 일종인 B세포에서 특이 항체인 '면역글로불린 E(이하 IgE)'가 만들어진다. 생성된 IgE는 혈액 내에 존재하는 비만세포와 결합하는데, 이 과정을 '감작'이라 부른다.

이후 동일한 항원이 다시 흡입되면 감작됐던 IgE와 결합하면서 비만세포를 자극하고, 자극받은 비만세포는 히스타민 등의 화학 물질을 방출시키는데, 이 물질에 의해 증상과 염증반응이 나타난다. 주연희(경상국립대학교 창원경상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알레르기 유발 항원에 감작이 되면 항원 특이 IgE 항체가 다량으로 만들어진다"며 "IgE는 항원에 재차 노출될 때 알레르기 반응이 빠르

게 일어나는 역할을 한다"고 전했다. 이에 더해 정선민(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알레르기비염 환자는 면역체계에서 일반적인 항체 대신 IgE가 항원과 결합해 염증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특징적"이라고 부연했다.

알레르기비염을 방지하면 어떻게 될까? 알레르기비염의 증상은 주로 재채기, 맑은 콧물, 가려움증과 코 막힘이며, 주로 이른 아침에 나타난다. 알레르기비염이 지속되면 흔히 '축농증'이라고 불리는 '부비동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부비동염은 코 안쪽 빈 공간인 '비강' 주위인 부비동 내부에서의 공기 흐름과 분비물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김동은(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알레르기비염에 의한 코 막힘 증상 등으로 수면호흡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알레르기비염은 집중력과 학습 능력의 저하를 초래하고 우울증, 불안증 등 정신과 질환 발생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 알레르기비염의 치료 방법으로는 ▲환경요법 ▲약물요법 ▲면역요법 등이 제시된다. 환경요법은 회피요법으로도 불리는데, 이는 증상을 유발하는 항원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는 근본적인 치료법이다. 그러나 이미 증상이 발생했다면 약물치료를 통해 개선해야 한다. 만약 약물치료가 효과를 보이지 않거나 부작용을 보인다면 면역요법을 시행할 수도 있다. 면역요법은 항원 또는 항원과 유사한 물질로

이뤄진 약물을 소량씩 지속적으로 체내에 주입해 일종의 내성을 유도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는 보편적으로 시행되는 치료법이 아니다. 주 교수는 "면역요법은 금전·시간적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며 "3년 이상 치료해야 하며, 약 7년에서 8년 이후 다시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약물치료에 비해 많이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알레르기비염은 완치가 어려운 질병이다. 수술로 코 막힘 등과 같은 증상을 완화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특정 알레르기 항원에 감작된 상태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리를 통한 개선은 가능하기에,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신승헌(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많은 환자가 증상이 경미하고 오랜 기간 증상이 지속돼 익숙해진 상태로 치료하지 않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민진영(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알레르기비염의 치료는 '완치'보다 '관리'라는 표현으로 설명돼야 옳다"며 "전문의 진료를 통한 정확한 진단으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차용해 치료하면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질환"이라고 설명했다.

*항원 : 물질이 체내에 침입한 경우, 면역응답을 특이적으로 유발하는 물질

**림프구 : 백혈구의 한 형태로 면역계를 구성하는 중심 세포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사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삼 학 송 · 선진국일 리 없다

‘대학은 사회의 맛보기라 말하는 이들이 많다. 대학생인 우리는 사회를 ‘찍먹’하고 있는 것과 같은데, 맛을 볼수록 그다지 먹고 싶지 않다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노동자로서의 삶이 기대되지도 않을뿐더러 그 삶 자체를 별로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직 제대로 겪어본 적 없는 길임에도 이미 등을 돌린 것이 청년층의 현주소다.

5월 1일, 한국에서 근로자의 날은 법이 정한 유급휴일이다.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세계 노동자의 날로도 불리는 이날은 노동자의 연대와 단결을 과시하는 국제적 기념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쉬지 못한 노동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가. 우리나라에서 근로자의 날에 돈을 받고 쉬 수 있는 사람들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뿐이다. 이 말인즉슨, 법이 규정하지 않은 근로자는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말이다. 대표적으로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등이 이에 해당된다. 더 쉽게 말하자면, 학습지 교사나 택배 기사 등이 지난 5월 1일에 일을 했다는 의미다. 『근로기준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 공무원 등도 근무했다. 이렇다 보니 꽤나 우스운 상황도 연출됐다. 근로자로 규정된 어린이집 교사는 쉬었지만 교육부 소속인 유치원 교사는 쉬지 못했다거나, 우체국에서도 우정직 공무원으로 불리는 집배원만 예외적으로 쉬었다는 가하는 광경이 펼쳐진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일자,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해 모든 국민이 쉴 수 있게끔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간과 관공서의 휴일을 일치시키겠다는 목적에서다. 실제로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의 많은 해외 국가에서는 각국 근로자의 날에 모두가 쉴 수 있게끔 해당일을 국가 공휴일로 정하고 있다.

법정 공휴일로서의 변모 역시 필요해 보이지만, 다양한 고용 형태를 아우를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며 그래야만 한다. 『근로기준법』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노동자의 형태를 고려하고, 그들을 법의 사각지대에서 구출해야 한다는 말이다. 일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의 테두리가 마련돼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근로자의 날이 지닌 의미를 되새겨 노동을 중시하고 존중하는 사회로 진보해야 한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1,910시간으로 OECD국 가운데 4번째로 많다. OECD 평균 노동시간보다 1인당 200시간 가량 더 일했다는 의미기도 하다. 이를 방증하듯 과로로 숨지는 노동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을 불온시하게 여기는 사회 분위기가 아직도 존재한다. 이외에도 비정규직 사안 등 노동 관련 문제는 썬을 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노동은 먹고 사는 문제 그 자체다. 장삼이사(張三李四)에게 먹고 사는 문제는 가장 중요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는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라 밝힌 바 있다. 부디 일하는 모든 이가 잘 먹고 잘 사는, 땅의 가치가 인정받는 사회에서 살고 싶다.

한해정 편집국장



지난 11일 '김포골드라인' 이용 승객 2명이 호흡곤란으로 실신하는 사고가 발생한 논란이 일었다. 김포골드라인의 승차장은 2량짜리 열차에 맞춰 건설돼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없는 탓에 이미 예전부터 혼잡도 문제가 제기돼 왔다. 김포시는 전세버스와 시내버스를 증차했고, 국토교통부는 버스전용차로 도입을 통해 혼잡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라 밝혔다. 하지만, 다수의 김포시민은 정시성이 보장되지 않는 버스가 지하철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입을 모았다. 예고 없이 발생하는 사고는 언제나 무고한 학생을 낳기 마련이다. 세월호 참사, 10·29 참사. 이미 소는 많이 잃었다. 이제는 특정한 외양간이 준비돼야 한다. 황서연 기자 hsy040623@gmail.com

■ 기자수첩

최근 한 10대 학생이 사망하는 과정을 SNS로 생중계하는 일이 벌어졌다. 해당 생중계 직후, 이를 녹화한 영상이 유튜브·트위터 등 여러 디지털 플랫폼을 거쳐 공유됐다. 모자이크 하나 없는 적나라하고 자극적인 영상 내용에 사람들은 경악했지만, 영상은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다. 사고가 발생한 지 20여 일이 지난 지금도 검색만 하면 언제든지, 누구든 어렵지 않게 해당 영상을 찾을 수 있다. 심지어 ‘풀(full) 영상’을 판매한다는 글까지 공유되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영상이 인터넷에 계속 남아있는 것은 당사자와 그 유족을 향한 ‘2차 가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영상 속 인물을 힐난하는 악성 댓글이 게재되고 있다.

SNS 속 끊임없는 돌팔매질

영상을 접한 사람의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포함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 실제로 국립정신건강센터 성인정신과와 국립트라우마센터 연구진이 발표한 「미디어 노출에 의한 간접외상이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에 미치는 영향 : 온라인 설문 조사 연구」에 따르면, 폭력적 영상 매체를 시청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스트레스·우울·불면 등의 지표가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폭력적이거나 자극적인 영상을 유포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법령이 부재한 실정이다. 현행 법률은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성착취물을 유포한 경우 등에 한정해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의 가이드라인 역시 영상 유포를 막는 것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유튜브는 사망 조장 콘텐츠를 삭제 조치하고 있으며, 트위터는 ‘민감한 게시물’을 지정해 해당 게시물 삭제를 안내하지만 이 같은 가이드라인은 후속 조치에 불과할 뿐이다.

그렇다면 2차 가해를 비롯한 피해를 막을 방법은 없을까.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로서의 시민의식이 해답이다.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영상을 온라인상에 게시하지 않고 소비하지 않아야 한다. 피해자와 그의 가족을 위로하는 마음, 애도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부터 시작이다. 무분별한 돌을 던지지 않는 시민사회가 마련되길 바란다.

박건희 기자 enqnk@hansung.ac.kr

■ 낙산에 올라

나치 독일의 총책임자는 히틀러였지만,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실무를 책임져 유대인 학살을 꾸민 것은 아이히만이었다. 재판장으로 끌려 온 아이히만은 600만 명을 학살시킨 사람 같지 않게 평범한 모습이었으며, 그런 그를 본 심리학자 한나 아렌트는 ‘악의 평범성’을 제시했다. 이는 모든 사람들이 평범히 여기는 행동이 악이 될 수 있다는 개념이다. 그녀는 시스템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악’이라고 정의하며, 의도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저지르게 되는 ‘악’을 비판했다.

아렌트의 말에 따르면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 ‘자유’라는 것은, 마냥 좋기만 한 것이 아니다. 자유에는 그만큼

의 고통스러운 책임이 동반되는데, 이를 버려낸다면 더 나은 사회가 되겠지만, 홀로코스트의 수많은 하층민 및 중산계층이 자유를 포기하고 전체주의에 의존했던 대부분 권위에 의존하는 길을 택한다.

피터팬 증후군, 피터팬 증후군을 아는가? 현실에서 도피해 스스로가 어른임을 부정한 채 타인에게 의존하는 심리를 말한다. 이는 최근 사회적 현상을 다룰 때 사용된다. 중소기업의 성장회피, 대학생들의 졸업유예 등이 같은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그만큼 통제되는 삶이 답답할지언정 편하다고 느낀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껏 통제되는 삶에 익숙한 우리는 사회에 나가서도 ‘악’일지 모르는 업무에 무조건적으로 동참할 가능성

이 크다. 밀그램 교수의 ‘아이히만 실험’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해질수록 사람들은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개인의 양심을 저버리기 쉽다. 아이히만이 분업화된 시스템을 사용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구성원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도록 업무를 쪼개 유대인 학살에 동참하도록 만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비판적 사고가 중요하다 말한다. 지금의 시스템은 올바른가? 더 나은 시스템은 없을까? 같은 비판적 사고를 키우는 것. 그것이 분업화된 현대 사회에서 악마가 되지 않고 인간으로서 살아가 수 있는 방법이다.

박은우(인문 2)

인간으로 살아가는 방법

■ 의화정

처음에 심리학자로서 사회 이슈를 다루는 교과목을 맡게 되었을 때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는 심리학이 어떠한 지점에서 사회 이슈와 관련되어 있을지를 고민하게 되었다. 심리학이라고 하면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과 같은 정신병리를 쉽게 떠올리게 되는데, 이러한 정신병리 문제는 남과 공유하기도, 그리고 남이 개입하기도 쉽지 않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면 개인의 정신병리는 단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쉽게 생각할 수 있다.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사이코패스는 병리명 자체가 “반사회적 성격장애”로 성격적으로 사회와 타인에게 죄책감 없이 피해를 주는 장애이기 때문에 타인들은 무방비한 상태에서 상당한 피해를 받게 된다. 즉, 한 명의 잘못된 사고

개인의 정신병리와 사회와의 관계

와 정신적 문제가 타인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것이다. 만약 그 한 명이 조직의 책임자라면 그 피해는 더욱 상당할 수 있다. 나의 정신적 건강 행진은 나의 인생은 물론이거니와 타인의 행복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의 행복과 안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인의 정신병리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 우리의 문제라 할 수 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개인의 정신병리와 사회적 관계가 있다. 어떻게 사이코패스가 되었을지에 대한 답이다. 심리학에서는 어떤 사람의 정신병리 원인을 Nature(타고남)와 Nurture(만들어짐)의 상호작용으로 파악한다. 사이코패스 역시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결합으로 그 원인을 해석한다. 사이코패스를 비롯한 많은 정신병리의 유전적 소인은 상당하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것은 환경적 요인

이다. 즉, 자신이 속한 사회가 어떠한 개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1인 가족, 저성장, 입시경쟁 등이 은둔형 외톨이, 우울증 등을 심리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이것이 집단적이라면 결국 그 사회는 병들어 활력을 잃게 된다. 사이코패스의 경우, 부모의 결핍, 특히 아버지의 결핍이 주요한 원인으로 언급된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이코패스도 그 원인을 따져보면 부모라는 울타리가 부족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서 가족, 학교, 조직, 국가가 개인의 정신건강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상기시켜줘야 할 것이다.

이 글을 마치며 여러분에게 다음의 질문을 던져본다. 여러분은 정신적으로 건강한가요? 여러분의 사회는 심리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 환경인가요?

이지영(소양핵심교양학부) 교수



동정란

김선태(예술학부 동양화전공) 교수
김 교수는 60화량에서 열리는 'Rustic Landscape'에서 4월 7일부터 5월 12일까지 작품을 전시한다.

이내찬(사회과학부) 교수
이 교수는 5월 19일, 한국언론학회에서 주최하는 '시 시대, 미디어를 통한 교육의 확장 방안 모색'에서 '인간을 넘어서는 챗GPT의 무한한 가능성, 이면에 도사리는 잠재적 위험'이라는 주제의 발제자로 참여한다.



▲한양도성 낙산구간



▲보문사의 묘보탑



▲조선의 국방을 총괄하던 삼군부 총무당

시대를 품은 성북

한성대입구역에서 나오자마자 볼 수 있는 사거리. 익숙한 도심의 풍경이다. 그러나 조금만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려 보면, 잠시나마 '시간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장소를 찾을 수 있다. 조선의 고전적인 정취부터 일제강점기의 아픈 역사, 그리고 가장 익숙한 현대까지. 다채로운 우리의 역사를 엿볼 수 있는 성북구 속 명소들로 함께 떠나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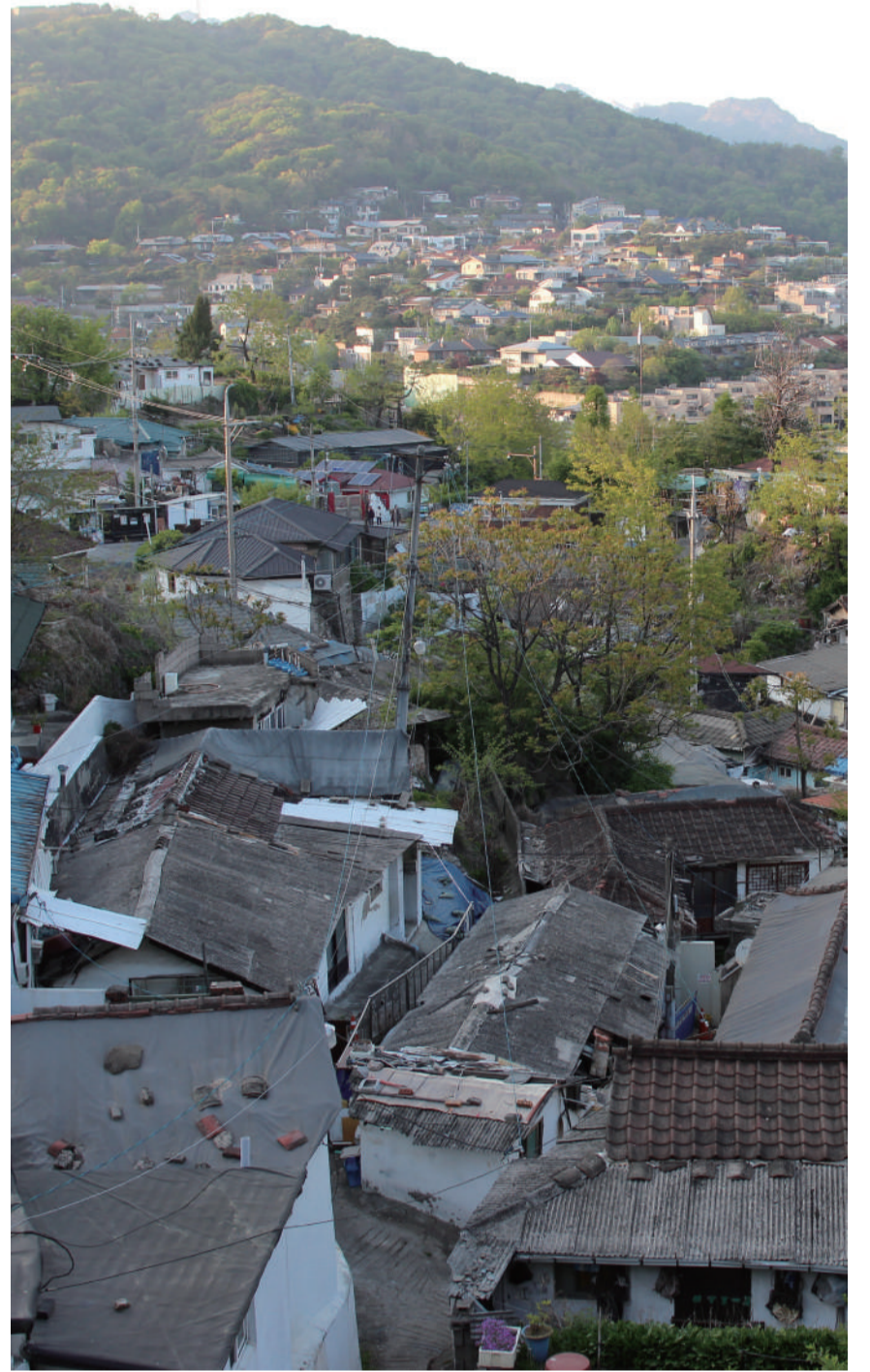
이름부터가 '성의 북쪽'을 뜻하는 성북구. '한양도성'을 빼놓고는 성북구의 명소를 이야기할 수 없다. 도성을 따라 난 길을 걷다 보면, 성벽을 지을 당시 공사 담당자의 이름을 새긴 돌인 '각자성석'을 찾으며 옛 왕국의 흔적을 실감할 수 있다. 보문역 인근의 '보문사에서 조선의 역사를 찾아 볼 수도 있다. 옛부터 비구니들의 수행처 역할을 해 온 보문사는 조선 왕실의 시주를 받아 범회를 진행하곤 했다. 본교 진리관 인근에 위치한 '삼군부 총무당'은 조선 후기의 군사 관청인 삼군부의 청사다. 조선 군대의 우두머리라 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 이르러 성북구는 항일운동이 전개되는 장소로 변모한다. 한성대입구역에서 성북동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만날 수 있는 '북정마을'은 옛 서울의 모습을 간직한 달동네다. 3·1운동 민족대표에 이름을 올리고 다수의 문학작품을 남긴 한용운이 1933년부터 1944년 입적할 때까지 살던 마을도 바로 이곳이다. 등하곶길에 무심히 지나다니던 '성북천'도 1919년 만세 운동이 벌어졌던 호국의 장소다.

현대에 와서도 성북구는 변함없이 '역사의 현장'이었다. 과거 군부독재 시절 정·재계 핵심 인사들이 자주 찾던 요릿집 '삼청각'이 성북동에 위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삼청각은 남북협상이 벌어지기도 한, 한국 현대사의 증거가 되는 장소다. 오늘날의 삼청각은 국악 공연과 우리 고유의 미술 전시 등을 진행하는 '북한문화공간'으로 거듭났다.

이처럼 성북구 곳곳에는 역사적 가치를 지닌 명소가 많다. 주위로 시선을 돌려 상기한 장소들을 방문해 보고, 그 시대의 분위기에 물씬 빠져보는 것은 어떨까.

박희진 기자 funi1120@naver.com
신지원 기자 idj_b01@naver.com



▲내려다본 북정마을 전경



▲맑게 흐르고 있는 성북천



▲삼청각 내 청천당의 외부 전경